

몸으로 표현하기 1 액션 페인팅

그룹, 퍼포먼스, 마임.

몸의 흔적을 이용하거나 몸의 형태를 살려 표현한다.

우리의 몸은 훌륭한 미술 도구가 될 수 있다. 붓이나 연필을 대신할 수도 있고 때로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도화지가 되기도 한다. 직접 손과 발로 물감을 찍어 몸의 흔적을 남기거나 몸의 움직임을 기록으로 남겨 보자.

- ▶ 이 동굴에는 선명한 손바닥 자국이 수없이 많이 남아 있다. 정확한 유래는 알 수 없지만 후대의 사람들은 이러한 몸짓의 흔적들을 '손의 동굴' 또는 '그림의 강'이라 부른다. 아르헨티나 남부에 위치한 '손의 동굴'(1만~1만 1천 년 전)



손바닥, 발바닥에 물감을 문혀 종이에 찍어 보고 물감을 종이에 뿌리면서 멋진 장면을 연출해 보자. 때로는 의도한 효과가, 때로는 우연한 효과가 일어나기도 하는 창의적인 활동이 가능할 것이다. 완성되었을 때 내가 찍고 뿌린 물감의 형상에서 내 활동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 **바디 페인팅**

몸을 화폭 삼아 재미있는 형상을 만들어 보자. 엄지손가락으로 세운 머리카락을 표현
 하듯 몸의 특정 부위가 지닌 특성을 살려 주제를 효과적으로 표현해 보자.



트럭 위에서 풀을 뜯는 얼룩말(학생 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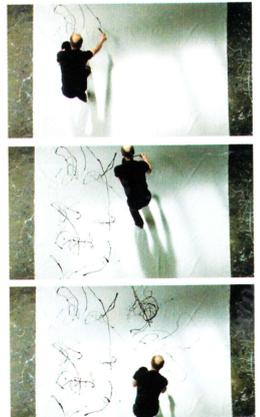
입맞춤(학생 작품)

▪ **액션 페인팅**

아래의 그림은 캔버스 위를 누비며 물감을 뿌려 표현한 액션 페인팅 작품이다. 이 작품
 에서 폴록의 몸동작은 흩뿌려진 물감으로 화폭에 남게 된다.



넘버 1A(캔버스에 유채와 에나멜 페인트/172.7×264.2cm/1948년) 폴록(Pollock, Jackson/1912~1956/미국)



영화 폴록(2000년/미국)
 중에서

- 손과 발로 물감을 찍거나 뿌리는 활동을 통해 내 몸의 흔적을 남겨 보자.
- 손과 발로 체험한 물감의 성질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 몸에 그림을 그려 형상을 만들고 나타내려는 의미를 전달해 보자.



몸으로 표현하기 2

퍼포먼스

몸짓을 이용하여 의미를 전달한다.

길을 가다 언어가 통하지 않는 외국인을 만났다고 상상해 보자. 우리는 어떻게 서로의 사소통을 할 수 있을까? 손짓, 발짓 등의 몸짓은 언어가 다른 상황에서도 필요한 의미를 주고받을 수 있는 또 다른 언어가 된다. 오른쪽 두 장의 사진을 보자. 막대기가 피리로 보이기도 하고, 망원경으로 보이기도 한다. 똑같은 사물이 서로 다르게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서 다른 용도의 사물처럼 보이는 것은 사람이 취한 몸동작 때문이다. 오늘날 미술에서 몸은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표현하는 도구로 적극 활용되고 있다.

말이 아닌 몸짓으로 표현해 보자.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거나 생각이 비슷한 친구들끼리 모여 말이 아닌 몸동작으로 서로 소통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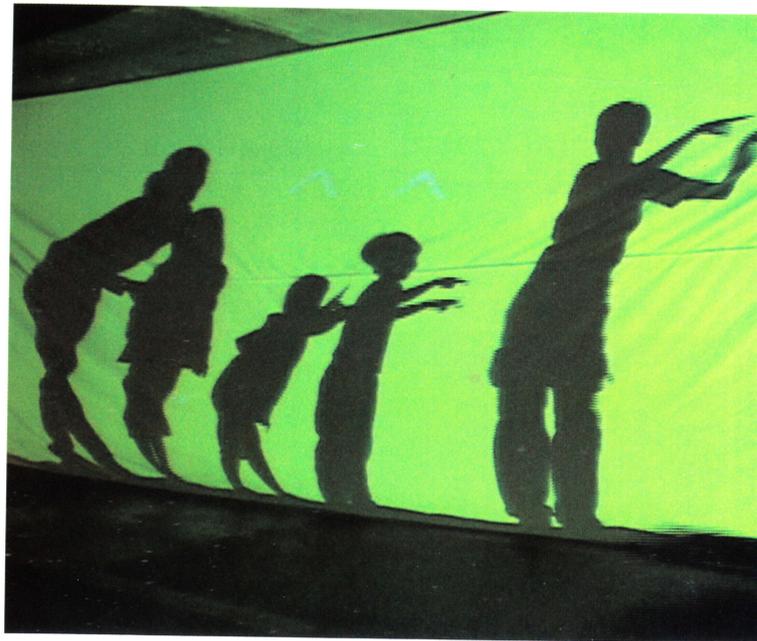
무용수들이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도시인의 바쁜 삶을 즉흥적인 몸짓으로 표현하고 있다. *삶의 여정, 도시의 여정* (2008년) 엑스 니일로 무용단(ex nihilo dance company/프랑스)



친구들과 한마음으로 미래를 향한 도약을 몸으로 표현하고 있다. *점프!* 김희연 외 5명(학생 공동 작품)



퍼포먼스



- ▲ 동네 하천에 조명과 커다란 스크린이 설치되고, 무용수들이 먼저 그림자 놀이를 하면 그것을 감상한 주민들이 직접 몸을 이용하여 그림자를 만든다. 그림자 놀이(서울 불광천 와산교에 설치/2007년) 이미지 행동집단 레드 안테나
- ◀ 마네킹처럼 움직이지 않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가, 관객이 바라보면 음악에 맞추어 노래를 하거나 새로운 동작을 취하는 행위 예술 작품이다. 연극과 시간의 특성을 도입한 움직임은 조각이라 할 수 있다. 노래하는 조각(퍼포먼스/1970년) 길버트(Proesch, Gilbert/1943~/영국)와 조지(Passmore, George/1942~/영국)

몸을 표현의 도구로 사용하는 퍼포먼스는 장소와 시간의 제약이 따르며, 동작을 통해 의도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퍼포먼스는 행위가 곧바로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사진이나 비디오로 남기는 것이 특징이다.



영원의 물(퍼포먼스/2008년) 전위 무용가 플레밍(Fleming, Maureen/1955~/미국)과 사진가 배병우(1950~/한국)

- 물건을 이용해 자신의 의도를 전달해 보자.
- 물을 이용한 작품들을 감상하고 표현 의도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